

트럼프,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野 일각, 보이콧 검토

11월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경제·이민정책 성과 부각
민주 일부 의원, 불참 또는 중도 퇴장 뒤 집회 참석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일 (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의 경제·외교·이민 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표심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등을 둘러싼 공화·민주당 간 갈등 속에 야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연설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연설이 미국의 분열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후 9시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회 합동 회의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설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황금시간대에 미 전역에 생중계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국정 기조와 정책 성과를 부각하는 무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4일에도 의회 연설을 한 바 있지만, 이는 공식 국정연설은 아니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는 통상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의회 연설을 하고, 집권 2~4년 차에 국정연설을 한다.

이번 국정연설은 미네소타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민정책 개혁안을 둘러싼 양당 갈등이 이어지며 국토안보부(DHS) 섯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여야가 이민정책 개혁 타협안을 마련해 국토안보부 예산을 처리하고 섯다운을 종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연설 보이콧 등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고물가 상황 등을 부각하며 중간선거를 겨냥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와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연설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연설 도중 퇴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디나 터투스(네바다), 시드니 캠퍼거-도브(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국정연설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대변인 등을 통해 밝혔다.

시드니 캠퍼거-도브(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안 갈 것 같다”고 답했다.

재러드 허프만(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연설 도중 퇴장할 의사를 밝히며 “내게 유일한 질문은 그의 역겨운 발언 중 어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흑인 역사의 달 기념 리셉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계정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영상을 공유했던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열렸다.

대목이 나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당수 의원은 연설을 보이콧하고 의사당 근처 내셔널몰에서 열리는 ‘국민의 국정연설’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집회는 좌파 운동단체 무브온 진보성향 미디어 기업인 메이다스터치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의료 정책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된 이민자들과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그는 40가지 다양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민주당원을 모욕할 것이며 자신의 부패를 덮으려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집회 참석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반 홀렌(메릴랜드), 에드워드 J. 마키(메사추세츠), 티나 스미스(미네소타) 상원의원과 베카 발린트(버몬트), 그렉 카사르(텍사스), 프라밀라 자야랄(위싱턴), 델리아 라미레스(일리노이) 하원의원 등도 국정연설 대신 집회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자신이 동의하지 않

는 연설이라도 끝까지 듣는 것이 국회의 관례인 만큼 민주당의 이 같은 대응은 기존 관례를 깬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 일원인 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국정연설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연설 내내 침묵을 지키거나 아예 불참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본회의장에서 노골적인 연설 방해 행위로 논란이 되기보다는 불참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미·러·우 3자 회담 종료
조만간 추가 회담 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17~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3자 중점협상이 소득 없이 끝났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이날 회담이 “어려웠다”고 평가하며 조만간 추가로 회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3자 회담이 2시간 만에 끝났다.

러시아 대표단을 이끈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번 회담이 “어려웠지만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하며 다만 아무런 성과도 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단은 회담 뒤 제네바를 떠나 모스크바로 향했다.

우크라이나의 루스탐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도 기자들에게 이틀간의 회담이 종료됐음을 확인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그는 이번 논의가 “집중적이고 실질적이었다”며 “진전은 있었지만 현 단계에서 세부 사항은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도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제네바 협상 라운드가 종료됐다. 논의는 어려웠지만 중요했다”며 “우리 팀과 함께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린 다음 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적었다.



“완벽한 시공, 완전한 안전”

대선소방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자)대선소방설비산업
(주)대선이엔지
(자)대선산업개발

(주)일등소방
(주)유덕전기소방공사
(주)엔에프건설

광주 서구 유덕로6번길 34(대선소방그룹)
E-mail : hd0119@hanmail.net
Fax : 062-371-7118
Tel : 062-381-7119